

# 현대 중국어 2음절 다품사어 ‘X+然’의 분산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장 호 득\*

<目次>

I. 서론	III. 형용사나 부사 및 다른 품사로 된 다품사어의 대조 분석
II. 형용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의 대조 분석	IV. 결론

## I. 서론

본고는 현대 중국어의 ‘X+然’ 구조 중 2음절 다품사어를 분산형태론적 관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하여, 그 생성 및 도출 원리와 경향성을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중국어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그 원리와 경향성을 중국어 교학(敎學)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고는 《现代汉语词典》(第7版)의 표제어 가운데 다품사로 표시된 2음절 ‘X+然’ 구조를 전수 조사하여 추출하고 분류한 후 한국어의 대당(對當) 동형 한자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목록화하여 중한 대조 분석을 진행 하도록 하겠다.

장호득(2021a: 109)에 따르면 《现代汉语词典》(第7版)의 표제어 가운데

\* 단국대학교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데 ‘X+然’ 구조로 된 2음절 어휘는 총 184개(표제자를 포함하면 185개)이며, 그중 ‘서면어’로 표시된 59개를 제외하면 현대 중국어에서 형용사, 부사 등 2개 이상의 다품사어로 풀이하고 있는 표제어는 13개이고, 단일 품사로 실고 있는 것이 112개라고 밝히고 있다. 또 그는 편폭의 제약으로 인하여 단일 품사어 112개를 중심으로 먼저 연구를 진행하고 다품사어 13개는 따로 독립된 한 편의 논문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sup>1)</sup> 따라서 본고는 장호득(2021a)을 이은 후속 시리즈 연구로 그 연구 범위와 대상만 달리할 뿐 논지 전개의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시리즈 연구로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는 더 일반화된 이론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董同龢(1981)도 책 한 권 한 권을 따로 연구하여 기초를 다진 후 그 연구를 종합하고 비교해야 안정적인 연구 기초를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sup>2)</sup> 그의 주장이 비록 고어(古語)의 자의(字義) 연구에 대한 논의이긴 하지만, 본고는 그의 관점에 동의하므로 이런 방식을 취하여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现代汉语词典》(第7版) ‘X+然’ 구조 표제어에서 다품사로 실린 현대 중국어 2음절 낱말 13개와 그 대당 한국어 한자어가 본고의 연구대상이다.

본 주제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문언문 연구에서 다루어졌는데 거의 대부분 학자들은 ‘然’을 형용사나 부사의 후철(後綴) 또는 사미(詞尾)로 보고 있다.<sup>3)</sup> 그러나 본 주제 관련 현대 중국어 연구, 특히 본고처럼 《现

1)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82집, 2021, 197쪽.

2) “我們要把每一部古書當一個單位來做，每一部書有它的時代性與地域性，分開單獨做才不至於彼此混淆，得到的知識才是準確性較大的。……一直要等到單獨的分書的研究有了相當穩固的基礎，我們才能談到綜合或比較，我們才能談到古語字義的演變，只有這樣，我們才能為古語字義的研究奠立一個穩固的基礎。”[董同龢, 〈古籍訓解和古語字義的研究〉(丁邦新編,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食貨出版社, 1981, 316쪽).]

3) 전자에 속하는 학자는 周秉鈞(1978), 蔣禮鴻·任鍾善(1984), 楊伯俊·何樂士(1992), 蒲立本(孫景濤譯, 2006) 등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학자는 廖序東(1981), 董璣(1986), 許仰民(1988)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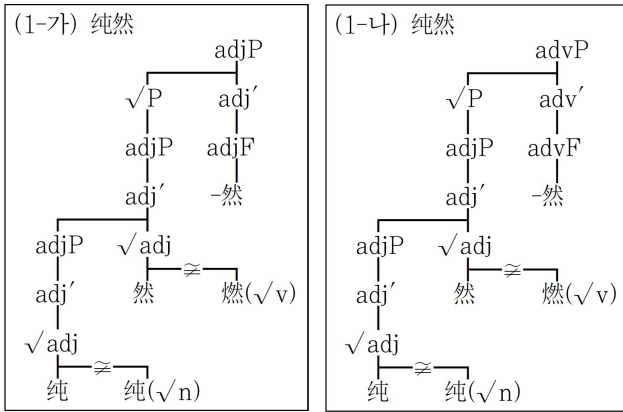
代汉语词典》(第7版)에서 어휘를 전수 조사하여 추출하고 분류한 후 분석한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선행 연구는 소략하고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sup>4)</sup>의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분산형태론은 Halle & Marantz(1993, 1994)에 의해 제안된 문법 이론이다. 이 이론은 생성문법의 전통 어휘론과 달리 통사부 입력 단위를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 보면서 단어 형성 부문도 ‘어휘부’가 아닌 ‘통사부’로, 형태-통사부의 관계를 ‘순차적, 분리적 관계’가 아닌 ‘잠재적 비분리적 관계’로 본다.<sup>5)</sup> 박소영(2011: 686)은 “단어 구성도 통사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통사부 연산을 통해 형성된다는 분산형태론 입장을 옹호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런 관점과 함께 본고는 한국어 분석에 있어서도 통사론을 전제로 형태론을 견지하여 이들이 독립된 별개의 층차나 인터페이스(interface, 介面)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통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형태-통사적 관점에서 논하도록 하겠다.

이상을 토대로 본고는 현대 중국어 ‘X+然’ 구조를 재분석하여 단어 형성의 특징을 구명하고 이를 다시 통사적 연산 과정의 분산된 모습으로 파악하여 형태-통사적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 II. 형용사와 부사로 된 다품사어의 대조 분석

본 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13개 어휘 가운데 《现代汉语词典》(第7版)에서 형용사와 부사로만 표시되어 있는 ‘纯然’, ‘当然’, ‘断然’, ‘浑然’, ‘冷然’, ‘偶然’ 등 6개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각 낱말의 내부 구조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수형도<sup>6)</sup>를 얻을 수 있다.

- 
- 4)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에 따른 국외의 연구 흐름과 한국어 문법 연구 양상은 박소영(2017)을 참조하기 바람.
- 5)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의 생성과 도출>, 《비교문화연구》, 제62집, 2021, 334쪽.



(1-가)는 형용사성 어근(√adj)가 ‘纯’이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P, Root Phrase)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synthetic compound)를 생성하고 있다. (1-나)는 (1-가)의 방식으로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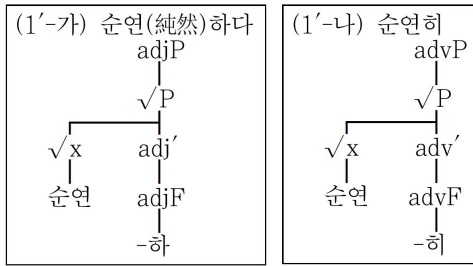
‘纯’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순수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성씨’의 명사로 풀이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 글자의 원형 의미

- 6) 본고, 특히 수형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김종호(2018)와 장호득(2021b)을 참조하기 바람.
- 7) 본고는 ‘AdjP’, ‘adjP’처럼 첫 철자를 대소문자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기본 어휘 배열 층위’의 용어이고, 후자는 ‘분산형태론’, ‘사건구조화 층위’의 용어이다. 즉, 후자는 완전히 문자화(spell-out)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특징을 내현적(covert)으로 띠고 있는 상태(‘형용사성’처럼 ‘-성’으로 표시)를 말한다. 부호 가운데 ‘≅’는 ‘의미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가차 관계 등의 연결 고리가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는 ‘의미적으로 같지도 않고 연결 고리도 약한 경우’를 가리킨다. 또 수형도에서 전통적인 부호 ‘^’를 쓰지 않고 ‘ㄱ’, ‘ㄴ’을 쓰는 것은 ‘핵어’를 명확하게 보여 주기 위함이다. 즉, ‘ㄱ’, ‘ㄴ’의 세로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핵어이다. 수형도 번호에서 ‘’가 없는 것은 현대 중국어이고 ‘’가 있는 것은 한국어이다. 즉, (1-가)는 현대 중국어의 예시이고, (1-나)는 한국어의 예시이다. 수형도에서 어근(語根, Root)은 ‘√’로 표시한다.
- 8) “纯①[形]纯净；不含杂质：纯金|水质很纯。②[形]纯粹；单纯：纯白|动机不

(prototype mening)는 가공하지 않은 비단실인 생사(生絲)를 가리킨다.<sup>9)</sup> 여기에서 '순수하다', '단순하다', '순박하다' 등의 확장 의미(extended meaning)가 나왔다. 그러므로 (1)에서 보듯이 먼저 '純'이 명사성 어근으로 '순수한 실', 즉 생사(生絲)의 의미로 생성되어 '순수하다'는 의미로 확장되면서<sup>10)</sup> 형용사성 어근 '然'과 함께 어근구로 투사된 후 다시 형용사화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偶然'<sup>11)</sup>도 '純然'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偶'의 원형 의미는 사람을 본뜬 인형<sup>12)</sup>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여기에서 '짝', '짝수', '우연히', '간혹'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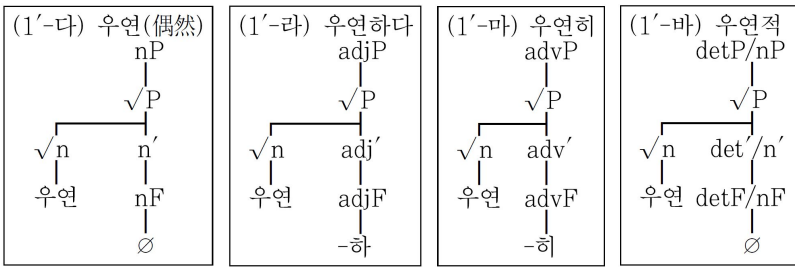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동형 한자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純。③[形]纯熟：功夫不纯，还得练。④[Chún][名]姓。”[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现代汉语词典》(第7版)，商务印书馆，2016，209쪽.]

- 9)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부산: 도서출판3, 2014, 388쪽.  
 10) 이 과정을 본고의 수형도에서는 '≧'로 표시하였다. 관점에 따라서는 '명사성 어근+형용사성 어근'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생사(의 성질)가 그러하다', '생사(그 특성)의 그러함'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이렇게 표시하였다.  
 11) 偶' [ǒu]用木头、泥土等制成的人像：木偶|偶像。◇偶' ①双数；成对的(跟“奇(jī)”相对)：偶数|偶蹄类|无独有偶。②配偶：佳偶。③[ǒu][名]姓。◇偶' [副]偶然；偶尔：中途偶遇|偶一为之|偶感风寒。  
 12) “人어 의미부이고, 땀가 소리부로, 사람을 닮은 긴 꼬리 원숭이를 말하며, 이로부터 원숭이처럼 사람을 닮은 '인형'의 뜻이, 다시 사람과 짝을 이룬다는 뜻에서 '짝'의 뜻이 나왔다.”(하영삼, 앞의 책, 478-479쪽).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순연(純然)’을 ‘순연하다’의 어근으로 풀이하고 있고, ‘냉연(冷然)’은 ‘냉연하다’의 어근으로 풀이하고 있다. 중국어가 ‘純然’을 ‘純+然’처럼 ‘형용사성 어근+형용사화 기능범주’ 또는 ‘명사성 어근+형용사화 기능범주’의 분산형태적으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한국어는 (1'-가)처럼 ‘순연’이 분리되지 않고 의미자질만 지닌 채 바로 어근<sup>13)</sup>으로 투사되고 형용사성 기능범주 ‘-하’와 결합하여 어근구로 생성된 후 형용사성 구인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된다. 또는 (1'-나)처럼 부사화 기능범주 ‘-히’<sup>14)</sup>와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어 부사성 구인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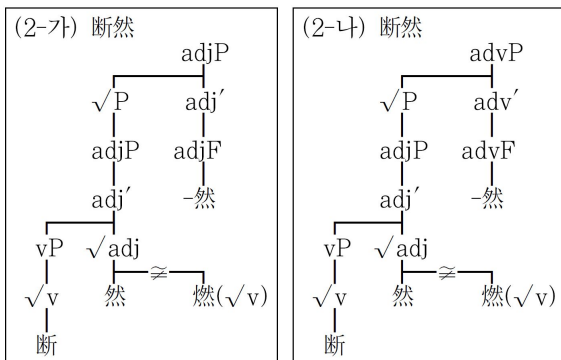


(1'-다)는 ‘우연’이 그 자체로 명사성 어근으로 투사된 후 영형태의 명사화 기능범주와 결합하여 어근구로 생성된 후 명사성 구인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1'-라) ‘우연(偶然)하다’와 (1'-마) ‘우연(偶然)히’는 명사성 어근에 형용사화 기능범주 ‘-하’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히’가 결합하여 형용사성 또는 부사성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1'-바)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인 ‘-적(的)’이 더해져 관형사 또는 명사를 다시 생성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X+然’이 사성(詞

13) 어근으로서 의미자질은 갖고 있지만 아직 사성(詞性)이 드러나지 않기에 ‘√x’로 표시하였다. 예컨대 사성이 동사성으로 드러난다면 ‘√v’로 표시한다.

14) ‘-히’는 일부 명사나 부사, 형용사 어근 뒤에서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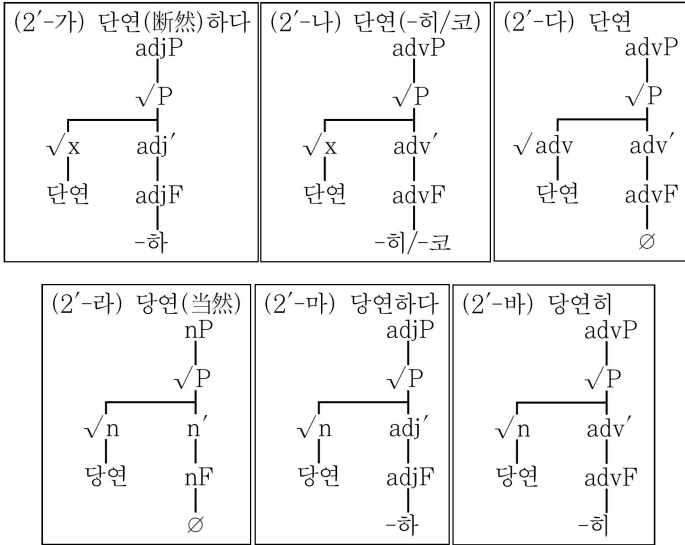
性)이 없는 어근( $\sqrt{x}$ )으로 투사되기도 하고 '우연'처럼 사성(詞性)이 있는 어근[명사성 어근( $\sqrt{n}$ )]으로 투사되기도 한다. 이 점은 'X+然'의 'X'와 '然'이 각각 어근 또는 기능범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국어와 다르지만 한국어는 'X+然' 구조 뒤에 기능범주를 붙여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2-가)는 동사성 어근 '断'과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2-나)는 '断'과 '然'이 같은 방식으로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겹으로 드러난 형태만으로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변별할 수 없다. 이것은 현대 중국어의 'X+然' 구조가 형태-통사적 특징을 띠면서도 겹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통사적 연산을 통해서만 정체성을 드러내는 내현적(covert) 분산형태(distributed morpheme)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断'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끊다'는 뜻을 나타내는 동사, 서면어에서 '단연코'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로 풀이하고 있다.<sup>15)</sup> 이 글자의 원형 의미

15) 断①[动](长形的东西)分成两段或几段: 砍断 | 割断 | 绳子断了。②[动]断绝; 隔绝: 断水 | 断电 | 断奶 | 断了关系 | 音讯断了。③[动]间断: 她每天都来给老人洗衣、做饭, 从没有断过。④[动]拦截: 把对方的球断了下来。⑤[动]戒除(烟酒): 断烟 | 断酒。⑥[动]判断; 决定: 断语 | 诊断 | 独断专行。⑦<书>[副]绝对; 一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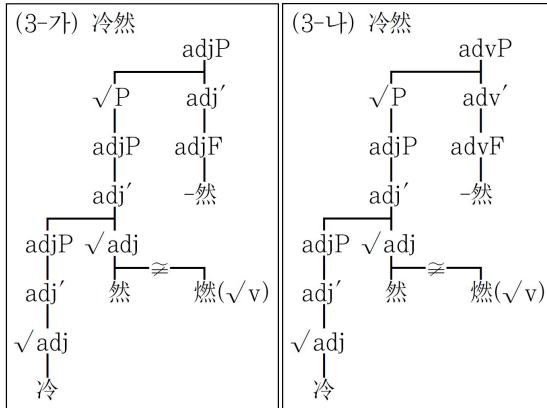
는 ‘갈 같은 도구로 실을 꿰다’이다. 여기에서 ‘단절하다’, ‘단정(斷定)하다’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다. ‘當然’도 ‘斷然’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sup>16)</sup>의 원형 의미는 ‘맞떡다’, ‘대당하다’ 등 동사이고, 여기에서 ‘저당(抵當)하다’, ‘적당하다’, ‘마땅하다’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기 때문이다.



(多用于否定式) : 断无此理 | 断不能信。⑧(Duàn)[名]姓。

- 16) 当 [dāng] ①相称 : 相当 | 门当户对 | 罚不当罪。②[动]担任 ; 充当 : 当干部 | 选他当代表。③[动]承当 ; 承受 : 敢做敢当 | 当之无愧 | 我可当不起这样的夸奖。④掌管 ; 主持 : 当家 | 当权 | 当政 | 独当一面。⑤[动]助动词。应当 : 该当 | 理当如此 | 能省的就省, 当用的还是得用。⑥[介]面对着 ; 向着 : 当面 | 当着大家说清楚。⑦[介]正在(那时候, 那地方) : 当今 | 当场 | 当我回来的时候, 他已经睡了。⑧<书>阻挡 ; 抵挡 : 螳臂当年 | 锐不可当。⑨<书>顶端 : 瓦当。⑩(Dāng)[名]姓。◇当<sup>2</sup> [dāng][拟声]形容撞击金属器物的声音 : 时钟当当当响了三下。另见 dàng。◇当 [dàng] ①合宜 ; 合适 : 恰当 | 妥当 | 得当 | 不当 | 失当。②[动]抵得上 : 割麦子他一个人能当两个人。③[动]作为 ; 当做 : 安步当车 | 不要把我当客人看待。④[动]以为 ; 认为 : 当真 | 我当你回去了, 原来还在这儿。⑤指事情发生的时间 : 当时 | 当天 | 当年。⑥同一个 ; 自己方面的 : 当村 | 当家子。◇当<sup>4</sup> [dàng] ①[动]用实物作抵押向当铺借钱 : 当当 | 典当 | 一只手表当了二百块钱。②押在当铺里的实物 : 当当 | 赎当。另见 dà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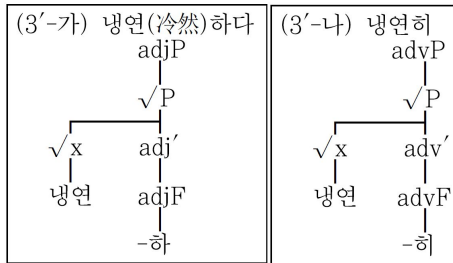
한국어의 (2'-가) '단연하다'와 (2'-나) '단연히'는 '단연'이라는 명사성 어근에 형용사화 기능범주 '-하-'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히/코'17)가 결합하여 어근구를 생성한 후 형용사성 구 또는 부사성 구의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다)의 '단연'이 품사를 나타내는 기능범주 표지 없이 영형태(zero form)로 바로 통합합성어인 부사성 구로 생성·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2'-라)의 '당연'도 기능범주 표지가 없이 영형태로 나타나지만 부사가 아닌 명사성 구라는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2'-마) '당연(当然)하다'와 (2'-바) '당연(当然)히'는 각각 명사성 어근 '당연'에 형용사화 기능범주 '-하-'와 부사화 기능범주 '-히'가 결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또 (2'-라)의 '당연'이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낱말을 생성하고 있는데, 명사로 '당연시(當然視)'와 '당연지사(當然之事)'가 있고 동사로는 '당연시하다'와 '당연시되다'가 있다. 이처럼 현대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조어 방식이 추가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당연'이라는 낱말이 널리 쓰이는 경향성도 있겠지만 한국어에서 명사성 어근 자체가 어근구로 투사되므로 그 뒤



17) '-코'는 일부 한자 어근이나 명사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1.01.05.)]

에 추가적인 어근 또는 기능범주가 올 여지가 많은, 즉 통합합성어를 생성하는 분산형태적 확장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3-가)는 형용사성 어근 ‘冷’이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3-나)는 같은 방식으로 어근구로 투사된 후 이 어근구가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冷’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형용사 ‘차다’, ‘냉정하다’, ‘생소하다’, 방언에서는 동사 ‘차게 하다’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18)</sup> 이 글자의 의미는 ‘얼음처럼 차다’는 뜻을 나타내고<sup>19)</sup>, 여기에서 ‘냉정하다’, ‘냉혹하다’, ‘한적하다’, ‘한가하다’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다. ‘浑然’도 ‘冷然’과 같은 방식의 연사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浑’<sup>20)</sup>의 원형 의미는 큰 물이 용솟음치면서 흐르는 모양<sup>21)</sup>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여기에서 ‘뒤섞이다’, ‘혼탁하다’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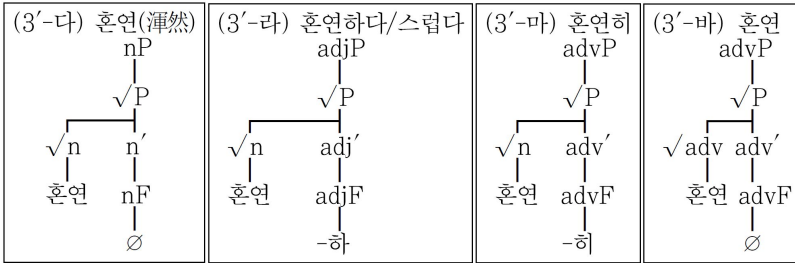


18) 冷①[形]温度低;感觉温度低(跟“热”相对):冷水|现在还不算冷,雪后才冷呢|你冷不冷?②<方>[动]使冷(多指食物):太烫了,冷一下再吃。③[形]不热情;不温和:冷面孔|冷言冷语|冷冷地说了声“好吧”。④寂静;不热闹:冷落|冷清清。⑤生僻;少见的:冷僻|冷字。⑥不受欢迎的;没人过问的:冷货|冷门。⑦乘人不备的;暗中的;突然的:冷箭|冷枪|冷不防。⑧[形]比喻灰心或失望:心灰意冷|看到他严厉的目光,我的心冷了半截。⑨(Lěng)[名]姓。

19) 하영삼, 앞의 책, 172쪽.

20) 浑①[形]浑浊:浑水|把水搅浑。②[形]糊涂;不明事理:浑人|这人真浑。③天然的:浑朴|浑厚|浑金璞玉。④全;满:浑身|浑似。⑤(Hún)[名]姓。

21) 하영삼, 앞의 책, 758쪽.



한국어에서 (3'-가)의 '냉연하다'와 (3'-나)의 '냉연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형용사와 부사로 표시되어 있는데, '냉연'이라는 사성이 없는 어근에 형용사화 기능범주 '-하-'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히'가 결합되어 어근구로 투사되어 각각 통합합성어인 형용사성 구와 부사성 구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이와 달리 '혼연'은 (3'-다)처럼 명사성 어근 또는 (3'-바)처럼 부사성 어근으로 투사된다. (3'-라) '혼연하다'와 (3'-마) '혼연히'는 명사성 어근<sup>22)</sup> '혼연'에 형용사화 기능범주 '-하-'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히'가 결합하여 생성·도출되고 있다. '당연'은 (2'-라)처럼 명사성 어근으로만 투사되는데, '혼연'은 그 자체로 (3'-다)와 (3'-바)처럼 명사성 어근과 부사성 어근 2개로 투사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스럽다'와 결합하여 '혼연스럽다'라는 통합합성어를 생성하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 외에 '일체', '일치', '천성' 등과 결합하여 '혼연-일체(渾然一體)', '혼연-일치(渾然一致)', '혼연-천성(渾然天成)' 등의 복합명사를 생성하기도 하는데 그 조어력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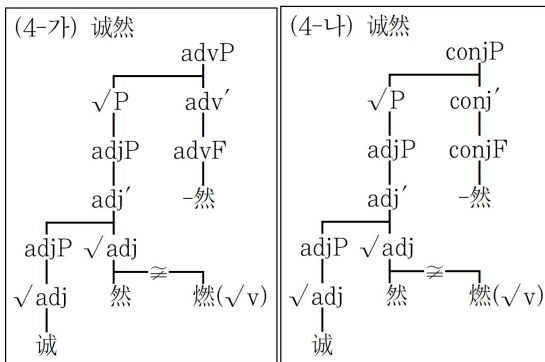
형용사와 부사 2개 품사로만 이루어진 현대 중국어 'X+然' 구조와 한국어의 대당 한자어를 대조 분석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2) 이를 '부사성 어근'에서 투사된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 명사 '혼연'에 부표제어 '혼연히', '혼연하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제어	한어병음	중국어 품사	한국어 품사 및 구조
纯然	chúnrán	形容詞&副詞	형용사[어근+-하-]&부사[어근+-히]
冷然	lěngrán	形容詞&副詞	형용사[어근+-하-]&부사[어근+-히]
断然	duànrán	形容詞&副詞	형용사[어근+-하-]&부사[어근+-히/-코]&부사
当然	dāngrán	形容詞&副詞	형용사[어근+-하-]&부사[어근+-히]&[명]
浑然	húnrán	形容詞&副詞	형용사[명사+-하-/스럽-]&부사[명사+-히]&명사/부사
偶然	ǒurán	形容詞&副詞	형용사[명사+-하-]&부사[명사+-히]&명사&관형사/명사[명사+-적]

### III. 형용사나 부사 및 다른 품사로 된 다품사어의 대조 분석

본 장에서는 《现代汉语词典》(第7版)에서 하나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설명하면서 나머지 하나는 다른 품사 용법을 제시하고 있는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한중 대조 분석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



(4-가)는 형용사성 어근 ‘诚’이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4-나)는 (4-가)와 같은 방식으로 어근구를 생성하지만, 이 어근구가 다시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이렇듯 외형적 형태, 즉 자면(字面)상으로는 발음상으로는 똑같은 모습이지만 부사와 접속사의 사성을 다 가진 다품사어이다. 부사인지 접속사인지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은 통사적 연산의 드러난 역할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내현적 특징을 띠고 있다. 또 재분석을 통해 보면 '诚然'이 '诚'과 '然'으로 분리되어 내부적으로 통사적 연산을 하고 있으므로 분산형태적 특징도 띠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중국어 '诚然'이라는 'X+然' 구조는 내현적 분산형태적 특징을 가진 통합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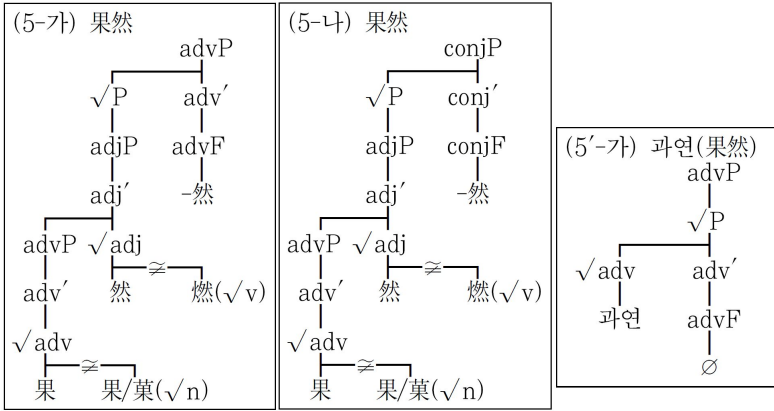
'诚'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서면어에서 '진실로', '정말로'의 부사와 '과연' 등의 접속사로 풀이하고 있다.<sup>23)</sup> 이 글자의 원형 의미는 말을 실행하는 성실함, 신실함을 가리킨다.<sup>24)</sup> 여기에서 부사 '정말로'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다. 그러므로 (4)에서 보듯이 '诚'이 '성실하다'라는 원형 의미와 부사 '진실로', '과연' 등의 확장 의미를 아우르는 의미자질로 적용되어<sup>25)</sup> 형용사성 어근으로 투사된 후 어근구를 거쳐 다시 형용사화 기능범주 또는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로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诚然'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동형 한자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고, 동음이의어인 "성연(盛宴/盛筵) 「명사」 성대한 연회."만 실려 있어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23) ①[形](心意)真实：诚心诚意 | 开诚布公。 | 她的心很诚。 ②<书>[副]实在；的确：此人诚非等闲之辈。 ③<书>[连]如果；果真：诚如是，则相见之日可期。 ④ (Chéng)[名]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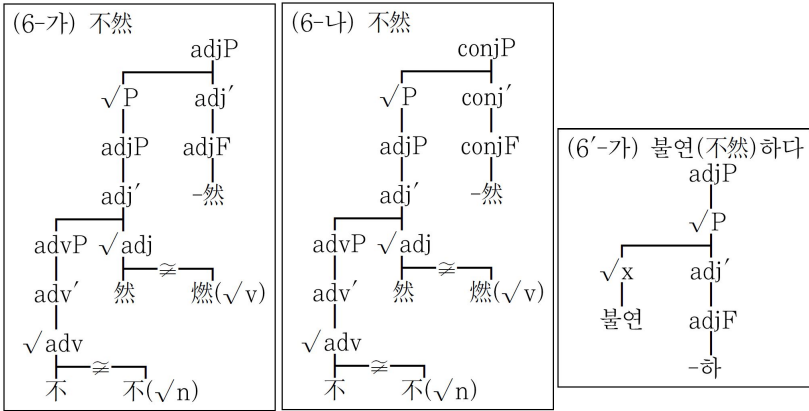
24) 【诚】(정성-성): “형성. 言(말씀-언)이 의미부고 成(이룰-성)이 소리부로, 정성이나 성실, 진실, 확실함 등을 뜻하는데, 말(言)을 실현하려면(成) 지금 정성(诚)을 다해야 하며 믿음이 담긴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하영삼, 앞의 책, 359쪽.)

25) '诚然'은 '성실함이 그러하다'의 '[诚]<sub>Sbj</sub>+[然]<sub>Prd</sub>'와 '진실로 그러하다'의 '[诚]<sub>Adv</sub>+[然]<sub>Prd</sub>'의 통사적 연산이 다 가능하므로 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5-가)는 부사성 어근 ‘果’가 형용사성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부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5-나)는 같은 방식으로 어근구로 투사된 후 이 어근구가 다시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접속사성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果’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과실’, ‘열매’, ‘결과’ 등을 뜻하는 명사, ‘과연’을 뜻하는 부사와 접속사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26)</sup> 이 글자의 원형 의미는 ‘과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결과’, ‘과연’, ‘정말로’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5)처럼 먼저 ‘果’가 ‘열매’, ‘결과’라는 의미에서 확장된 뜻인 부사성 어근 ‘과연’으로 투사된 후 어근구를 거쳐 부사화 또는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국어 ‘과연’은 (5-가)처럼 바로 부사성 어근으로 투사된 후 영형태-‘-히’ 등의 부사화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음-의 부사성 기능범주와 함께 어근구로 투사되면서 영형태의 부사성 구로 생성·도출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6) 果①(～儿)[名]果实①：水果 | 开花结果。注意“菓”是“水果”、“红果儿”等的“果”的异体字。②事情的结局；结果(跟“因”相对)：成果 | 前因后果。③果断：果敢。④[副]果然①：果不出所料。⑤[连]果然②：果能如此，定有长进。⑥(Guò)[名]姓。



(6-가)는 부사성 어근 ‘不’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6-나)는 (6-가)처럼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접속사화 기능범주 ‘-然’과 결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자원 분석에서 ‘不’를 명사성의 ‘씨방’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과 부정부사 ‘不’는 가차 관계로, 그 의미적 연관성이 미미하므로 수형도 (6)에서 ‘≒’로 표시했다.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然’을 ‘이러하다’, ‘그러하다’의 대사, 서면어로 ‘맞다’, ‘옳다’ 또는 접속사 ‘그러나’, 부사와 형용사의 접미사, ‘태우다’는 뜻을 나타내는 ‘燃’처럼 쓰기도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sup>27)</sup> 이 구조를 재분석해 보면 ‘不’와 ‘然’이 ‘부사어+술어’ 통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然’의 원형 의미는 ‘태우다’의 ‘燃’으로 ‘然’과 ‘燃’이 가차(假借)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의미적 연관성은 미미하여 (6-가, 나)처럼 ‘≒’로 표시된다. 뿐만 아니라 ‘-然’이 주로 부사나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지만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5-나)와 함께 접속

27) 然①〈书〉[代]指示代词。如此；这样；那样：不尽然 | 知其然，不知其所以然。②〈书〉对；不错：不以为然。③〈书〉[连]然而：此事虽小，然亦不可忽视。④副词或形容词后缀：忽然 | 突然 | 显然 | 欣然 | 飘飘然。⑤(Rán)[名]姓。〈古〉又同“燃”。

사를 형성하는 접미사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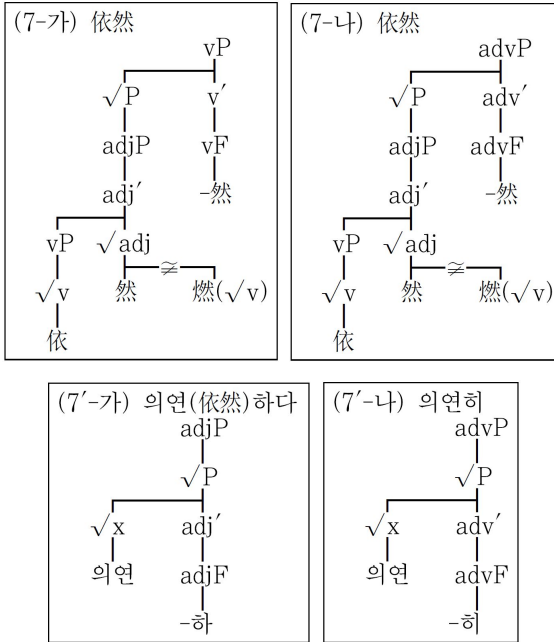
한국어를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불연’ (不然)을 “‘불연하다’의 어근.”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불연-하다’ (不然하다)를 “「형용사」 그렇지 않다.”로 풀이하면서 “네 말이 사실이러다? 불연하면 엄벌을 면치 못하리라.”라는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6-가)는 ‘불연’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어근으로 투사되고 형용사화 기능범주 ‘-하-’와 융합하여 어근구를 형성하면서 형용사성 구인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7-가)는 동사성 어근 ‘依’와 형용사성 어근 ‘然’이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동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7-나)는 (7-가)와 같은 방식으로 어근구로 투사되고, 이 어근구가 다시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依’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기대다’, ‘의지하다’, ‘따르다’, ‘동의하다’ 등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 ‘따라서’의 뜻을 나타내는 개사와 ‘성씨’를 나타내는 명사로 풀이하고 있다.<sup>28)</sup> 이 글자의 원형 의미는 ‘옷을 입다’<sup>29)</sup>는 뜻인데, 여기에서 ‘기대다’, ‘의지하다’ 등의 확장 의미가 나왔다. 그러므로 (7)은 ‘의지하다’의 동사성 어근 ‘依’가 형용사성 어근 ‘然’과 결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동사화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로 도출되고 있다. 이를 통해 ‘-然’이 부사나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기능 외에 (7-가)처럼 동사를 형성하는 접미사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연’ (依然)을 “‘의연하다’의 어근.”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부표제어로 ‘의연-하다’와 ‘의연-히’를 제시하고 있다. 즉, (7-가, 나)의 ‘의연’은 의미자질은 있지만 사성(詞性)이 없는 상태에서 그 자체로 어근으로 투사되고 형용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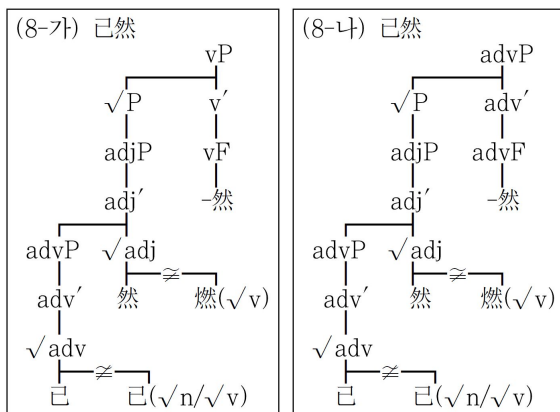
28) 依①紧挨着：依偎 | 依山傍水。②[动]依赖；依靠：唇齿相依 | 相依为命 | 回乡依亲。③[动]依从；同意：依违两可 | 劝他休息，他怎么也不依。④[介]按照：依次 | 依法 | 依我看，这样办可以。⑤[Yi][名]姓。

29) “人衣 의미부고 衣가 소리부로, 사람이 옷을 입다가 원래 뜻이며, 사람에게서의 옷과 같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언제나 의지하며 기대야 하는 곳임을 그렸다. 이후 의지하다, 근거하다, 순종하다 등의 뜻도 나왔다.”(하영삼, 앞의 책, 512쪽.)

기능범주 '-하'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히'와 융합하여 어근구로 투사된 후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보면 현대 중국어와 달리 한국어의 'X+然'은 본연의 의미자질만 갖되 사성(詞性)이 없는 어근-'然'은 중국어와 달리 분산형태적 특징이 없음—이지만 그 대신 '-하', '-히' 등이 품사화 기능범주를 붙여 품사를 형성하는 역할로 외현적 분산형태의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는 중국어의 'X+然' 구조에 기능범주를 더하여 형태적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분산적으로 그 형태-통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현적 분산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의 ‘已然’도 (7)의 ‘依然’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되고 있다. 여기에서 ‘已’는 ‘쟁기’의 명사성 의미, ‘그치다’, ‘정지하다’의 동사성 의미에서 ‘이미’ 등의 부사성 의미로 확장 또는 파생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sup>30)</sup> ‘已然’에 해당하는 한국어 동형 한자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고, 이-연’ (李淵) 등 동음이의어만 9개가 실려 있어 분석을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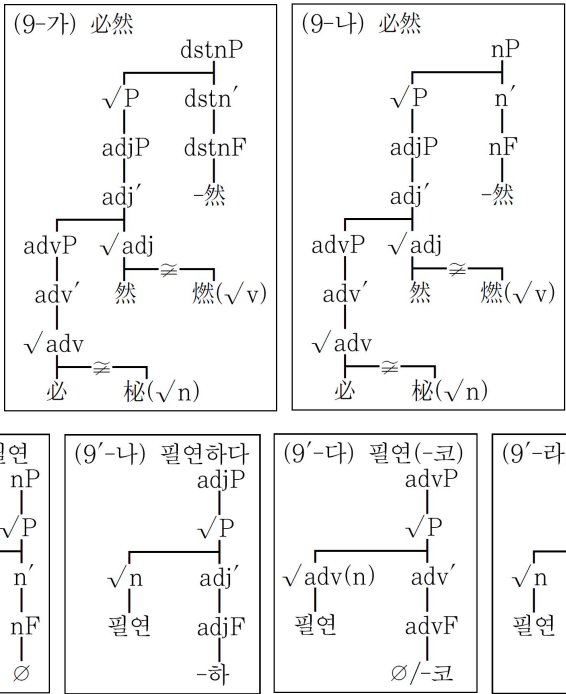
(9)의 ‘必然’은 ‘不然’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만, ‘不然’은 형용사와 접속사를 도출하는 반면 ‘必然’은 구별사(속성사)와 명사를 도출하고 있다. ‘必’에 대해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반드시’, ‘필수적으로’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31)</sup> 이 글자의 의미를 ‘무기를 끼우는 자루’<sup>32)</sup>라는 뜻으로도 풀이하는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반드시’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즉, 자원 분석에 따라 ‘必’를 명사성 의미인 ‘자루 [秘]’으로 풀이할 수도 있지만 ‘必’와 ‘秘’의 의미적 연관성은 미미하므로

30) ①停止：争论不已 | 有加无已。②[副]已经(跟“未”相对)：已婚 | 已故 | 已知 | 时间已过 | 此事已解决。③<书>[副]后来；过了一会儿：已而 | 已忽不见。④<书>[副]太；过：不为已甚。⑤(Yì)[名]姓。<古>又同“以”。

31) 必①[副]必定；必然：我明天三点钟必到 | 不战则已，战则必胜。②[副]必须；一定要：事必躬亲 | 事物的存在和发展，必有一定的条件。③(Bì)[名]姓。

32) 하영삼, 앞의 책, 718쪽.

그런 관계를 '≅'로 표시했다. 이렇듯 현대 중국어의 접미사 '-然'은 형용사, 부사뿐만 아니라 동사, 접속사, 구별사, 명사 등 다양한 품사를 생성하고 있다. 이것은 어휘론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재분석의 통사적 연산에서 분산형태 방식으로 품사 형성에 관여함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중국어는 내현적 분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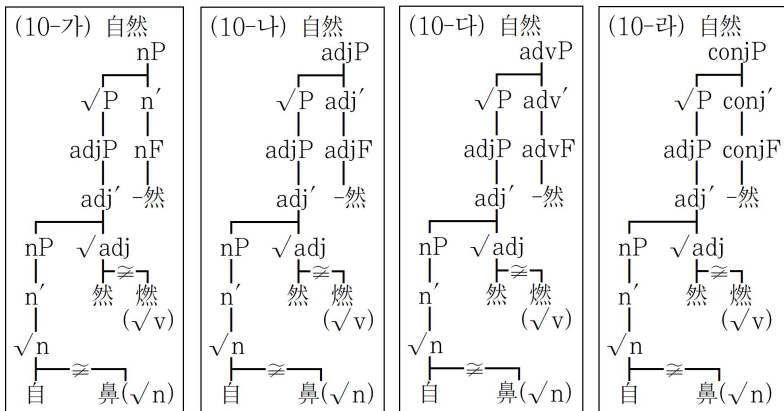


(9')는 '필연'이 명사성 또는 부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어 영형태, 형용사화, 부사화, 관형사화, 명사화 기능범주와 결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하고 있다. 즉, 영형태는 부사와 명사를, '-하'는 형용사를, '-코'는 부사를, '-적'은 관형사와 명사를 생성하고 있다. 영형태와 '-코'가 각각 부사를 생성하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필연코(必然코)'를 “ 「부사」 '필

연'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풀이하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니 필연코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예문을 싣고 있다. 그런데 같은 책 ‘-코’의 풀이는 “「접사」 ((일부 한자 어근이나 명사 뒤에 붙어))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보면서 “결단코 기어코 맹세코.”를 제시하고 있지만 ‘강조’의 풀이는 없다. 즉, ‘필연’은 영형태 또는 부사화 기능범주 ‘-코’를 붙여 2개의 부사를 생성하고 있다. ‘필연적’은 앞에서 분석한 ‘우연적’의 반대말로 그 생성·도출 과정이 비슷하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필연’과 ‘우연’은 반의어로, 전자에 ‘-히’와 결합하는 부사-*\*필연히*-가 없고 영형태로 부사를 생성된다는 점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현대 중국어에서 ‘偶然’은 형용사와 부사로 생성되는데, ‘必然’은 부사가 되지 못하고, 구별사(속성사)와 명사로만 생성되어 대칭적 관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중국어에서 ‘或然’이라는 낱말이 ‘必然’과 대를 이루기도 하는 점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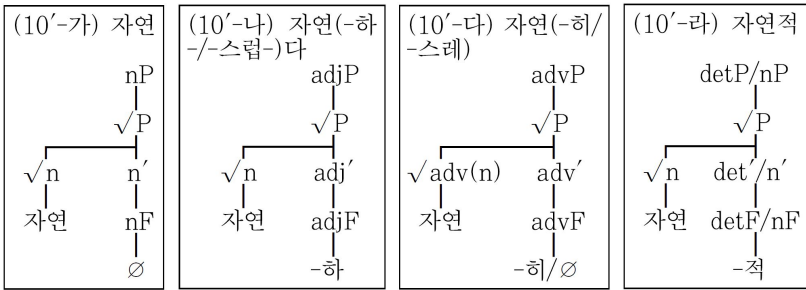
다음으로 ‘自然’과 ‘자연’에 대해 살펴보자.<sup>33)</sup>



33) 이 부분은 장호득(2021a: 209, 2021b: 344)을 참조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또 이 두 논문은 단일 품사어인 형용사 ‘自然’의 분석이고, 본고는 다품사어(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自然’ 대한 수행도와 분석이다.

《现代汉语词典》(第7版)은 '自'에 대해 '대사(代詞)'로서 '자기', '부사'로서 '자연히', '당연히' 등의 풀이 항목을 싣고 있다.<sup>34)</sup> '自'는 원래 '코[鼻]'<sup>35)</sup>를 뜻했는데, 이후 '자신', '스스로'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鼻(코-비)'에서 '자신' 등의 의미로 확장되면서 의미 연관성은 약하지만<sup>36)</sup> 가차 과정을 '讵'로 표시했다. (10)은 원형 의미인 '鼻'가 직접 어근 투사에 관여하지 못하고 확장 의미인 '自'가 명사성 어근으로 투사되어 각각 명사화(10-가), 형용사화(10-나), 부사화(10-다), 접속사화(10-라)의 기능범주 '-然'과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로 생성·도출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然'은 형용사나 부사의 접미사뿐 아니라 구별사, 명사, 동사, 접속사를 형성하는 접미사 기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X+然' 구조는 어휘론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재분석 과정에서 형태소로 분산되어 품사의 형성에 관여하면서 통사적 연산에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내현적 통합합성어를 생성하는 과정까지 살펴야 한다.



(10)은 '자연'이 명사성 어근 또는 부사성 어근에서 어근구로 투사되어

34) 自 ①自己：自动 | 自卫 | 自爱 | 自力更生 | 自言自语 | 自娱自乐 | 自告奋勇 | 自顾不暇 | 不自量力。②[副]自然；当然：自不待言 | 公道自在人心 | 两人久别重逢，自有许多话说。③(Zi)[名]姓。■自<sup>2</sup> [介]从；由：自小 | 自此 | 自古 | 自远而近 | 自北京出发 | 选自《人民日报》 | 来自各国的朋友。

35) 하영삼, 앞의 책, 532쪽.

36) 하영삼은 위의 책에서 의미적 연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용사화, 부사화, 관형사화, 명사화 기능범주와 함께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외현적 분산형태로 영형태, ‘-하-’, ‘-스립-’, ‘-히’, ‘-스레’, ‘-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형태는 (10'-가)와 (10'-다)처럼 각각 부사와 명사를 생성하고, ‘-하-’와 ‘-스립-’은 형용사를 생성하고, ‘-히’와 ‘-스레’는 부사를 생성하고, ‘-적’은 관형사와 명사를 생성하고 있다.<sup>37)</sup> ‘자연’은 앞의 ‘필연’과 함께 어휘 생성력이 큰 어휘인데 이것은 언중의 사용 빈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제어	한어병음	중국어 품사	한국어 품사 및 구조
诚然	chéngrán	副詞&連詞	-
果然	guǒrán	副詞&連詞	부사
不然	bùrán	形容詞&連詞	형용사[어근+-하-]
依然	yīrán	副詞&動詞	형용사[어근+-하-]&부사[어근+-히]
已然	yǐrán	副詞&動詞	-
必然	bīrán	區別詞&名詞	형용사[명사+-하-]&부사&부사[명사/부사+-코]&명사&관형사/명사[명사+-적]
自然 <sup>1</sup>	zìrán	形容詞&副詞&名詞 &連詞	명사&형용사[명사+-하-/-스립-]&부사&부사[명사/부사+-히/-스레]&관형사/명사[명사+-적]

#### IV. 결론

본고는 현대 중국어 ‘X+然’ 구조와 그 동형 한자어에 대한 중한 대조 분석을 분산형태론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37) 장호득(2021a: 209)은 단일 품사어 형용사 ‘自然<sup>2</sup>’의 한국어 대당 표현으로 명사(영형태), 형용사(-하-, -스립-), 부사(영형태, -히, -스레), 관형사(-적)를 모두 상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다품사어인 ‘自然’의 대당 표현으로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본다.

첫째, 현대 중국어 'X+然' 구조에서 '-然'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형용사와 부사의 접미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명사, 동사, 구별사, 접속사를 형성하는 접미사로도 쓰이고 있다.

둘째, 한국어 동형 한자어에서는 'X+然' 구조가 의미자질만 갖는 어근으로 투사된 후 품사를 만드는 기능범주와 융합하여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하고 있다. 그 기능범주는 영형태(부사화, 명사화), '-하-'(형용사화), '-스럽-'(형용사화), '-히'(부사화), '-스레'(부사화), '-코'(부사화), '-적(관형사화, 명사화)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X+然' 구조는 중한 언어에서 공히 분산형태론적 방식으로 생성·도출되는 통합합성어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장호득(2021a)의 단일 품사어에 대한 연구 결과와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다품사어의 특징으로 '명사화 접미사', 부사화 기능 범주 '-코' 등 추가적인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어는 내현적 분산형태론의 방식으로 생성·도출되고, 한국어는 외현적 분산형태론의 방식으로 통합합성어를 생성·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운다면 모어 간섭을 많이 배제할 수 있어 교학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검색일: 2021.01.05.)

김중호, 《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2018.

박소영, 〈한국어 통합합성어의 통사구조와 형태-통사론의 접면〉, 《생성문법연구》 제21권 제4호, 2011.

- 박소영, 〈분산형태론의 이론적 동향과 한국어 문법〉, 《우리말 연구》 49집, 2017.
-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과 그 동형 한자어의 형태론적 중한 대조 분석〉, 《중국문학연구》, 제82집, 2021a.
- 장호득, 〈현대 중국어 2음절 단일 품사어 ‘X+然’의 생성과 도출〉, 《비교문화연구》, 제62집, 2021b.
-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2014.
- 董琨, 《古代汉语漫谈》, 齐鲁书社, 1986.
- 董同龢, 〈古籍訓解和古語字義的研究〉(丁邦新編, 《董同龢先生語言學論文選集》, 食貨出版社, 1981.
- 蒋礼鸿、任钟善, 《古汉语通论》, 浙江教育出版社, 1984.
- 廖序东, 《文言语法分析》, 上海教育出版社, 1981.
- 蒲立本, 《古汉语语法纲要》(孙景涛译), 语文出版社, 2006.
- 许仰民, 《古汉语语法》, 河南大学出版社, 1988.
- 杨伯俊、何乐士, 《古汉语语法及其发展》, 语文出版社, 1992.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7版), 商务印书馆, 2016.
- 周秉钧, 《古汉语纲要》, 湖南人民出版社, 1978.
- Halle, M. & A. Marantz,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K. Hale & S. J. Keyser(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MIT Press, 1993.
- Halle, M. & A. Marantz, *Some key features of distributed morphology*,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94.

## 〈Abstract〉

This paper conducted a Chinese-Korean contrastive analysis of modern Chinese 'X-rán(然)' and its equivalent Sino-Korean words from a distributed morphology perspectiv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modern Chinese 'X-rán(然)' structure, '-rán(然)' is not only used as an adjective and adverbial suffix, but is also used as a suffix to form nouns, verbs, distinctions, and conjunctions.

Second, in Sino-Korean words, the 'X-rán(然)' structure is projected as root and root phrase, and then combined again with functional categories to generate synthetic compounds. Its functional categories were shown as zero form(adverbials, nouns), '-ha-' (adjectives), '-hi'(adverbials), '-ko'(adverbials), and '-jeog'(determiners, nouns).

Third, the 'X-rán(然)' structure has the characteristics of synthetic compounds, which are generated in a distributed morphological manner in both Chinese and Korean.

Chinese is generated in the manner of covert distributed morphology, but Korean is generated in the manner of overt distributed morphology. Recognizing this, if Koreans learn Chinese, they can rule out more interferences, which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Key Words** : 현대 중국어(Modern Chinese), X+rán(X+rán), 한자어(Sino-Korean Words), 한국어(Korean),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

